

# 목 차

## 國際學術會議 日程

歡迎辭/權淳績 理事長

基調發表/南冥學과 韓國儒學의 座標/金忠烈 院長/자료별첨

## 학술발표

1. 孫英植(울산대)/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립 이론과 사림의 정신 /1  
▷ 韓相奎(東洲女專)/「南冥 曹植의 主體性 확립이론과 士林의 精神」의 논평/26
2. 周道濟(前 臺灣大)/南冥先生政治思想의 研究/29  
▷ 金忠烈(本院 院長)/讀周道濟教授著「南冥先生政治思想의 研究」有感(評)/39
3. 趙南浩(서울시립대) /김창협 학파의 남명학 비판 / 43  
▷ 丁垣在(서울대 강사)/조남호 님의 「김창협 학파의 남명학 비판」을 읽고/58
4. 吳二煥(慶尙大)/실증과 진실/자료별첨  
▷ 金侁秀(慶尙大)/자료별첨
5. 쏘냐 호이슬러(독일, 훔볼트대)/자료별첨  
▷ 崔鍾德(상지대)/자료별첨
6. 申炳周 (서울대 규장각)/16세기 초 處士型 學者의 學風과 現實觀/63  
▷ 盧大煥/(서울대강사)/토론 요지/72
7. 權仁浩(大眞大)/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73  
▷ 朴洪植(慶山大)/權仁浩교수의 「南冥學派의 實學思想研究」를 읽고/98
8. 薛錫圭(慶北大)/宣祖·光海君代 南冥學派의 政治運營論/101  
▷ 禹賢玟(安東 中央高)/  
「南冥學派의 政治運營論과 公論政治의 확립」에 대한 토론 요지/108

호이슬러 박사의 남명 선생 묘지 연구는 매우 특이한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필자의 연구는 남명 집에 수록된 20 여편의 묘지에 제한되어 있지만 남명의 인격성을 엿볼 수 있는 또다른 지면이라고 생각한다.

20여편에 걸친 묘지는 거의 대부분이 남명과 친분이 있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쓰여진 것이다. 호이슬러 박사가 밀했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고인의 생애묘지라 더불어 남명 자신의 감정이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명 자신의 감정이입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대체로 객관화된 형식에 맞추어 묘지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객관화된 형식은 죽은이의 생애와 가족들의 관직 그리고 학문과 인간됨으로 짜여진다.

이 형식화된 틀에서 남명이 당시 사회의 모범적 인간됨의 이상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녀자의 묘지에는 대부분 부녀자 개인보다는 집안과 타인에 대한 부녀자의 바른 처사를 적어 놓았다. 호이슬러 박사는 이 부분을 토포스로서 설명하였다. 토포스는 개인의 개성을 당시의 역사적 모델에 맞추어 묘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부녀자의 예 말고 다른 예를 들면 恭人 牟氏의 銘을 보자. 이 글을 쓴 시기는 남명이 金海 만석군인 처가에 머물던 때이다. 그는 그곳에서 山海亭이라는 정사를 지어놓고, 산처럼 높고 바위처럼 깊은 학문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己卯土禍 이후 은거의 바람이 있었던 때이라, 지소와 정신을 단편으로 상징하는 은거는 절미가 갖을 수 있는 당시의 한 토포스일 수 있었다.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派者同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이다.	百川雖異則水
선이란 게 하늘이 지키는 것이면	善者天水
만고의 긴 세월이 지나도 지켜지리라	萬古雖長則水

정백빙과 조식은 처형지간이었으나, 사실 남명이 공인 모씨의 행적을 완전히 알고 이같은 명을 썼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묘지를 보면

부인을 장사지낸 때 백빙(부인의 외손주)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외가는 이렇다 내가인데 부조의 가업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딸만 있고, 그 딸은 물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계통을 이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차마 그 행적을 배물시켜 버릴 수도 없으니, 청컨대 그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 오복五服에 해당되는 후손들이 무덤의 비석에 새기려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남명집 227쪽)

- “내가 제학공의 친구라 하여, 나에게 와서 명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의인 안씨, 202쪽)
- “나를 먼 친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다.” (시강원 보덕 조공 묘명, 204)
- “이번 자함의 아들 유안이 다시 갈명을 써달라고 왔으니...” (처사 신군 묘표)
- “내가 여기에 쓴 것은 단지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것일 따름이다”(진사 강군 묘표)
- “나에게 쌍묘비문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내가 글을 짓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더니...”(숙인 현씨 쌍묘표)
- “그 후 힘 닿는 대로 자금을 모아 비석을 마련한 뒤, 나에게 비문을 요청하였다”(이군 묘갈)
- 그들은 모두 “문학의 대가들이었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 집의 부인 백씨 비문)
- “명을 지어 달라고 세 번이나 찾아 왔는데...” (외인 광씨 묘표)

그의 아들이 세 번이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어머니의 행적을 글로 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숙인 남씨 묘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남명이 쓴 묘지는 대부분 조아리는 간청에 의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고인의 행적을 빌어, 남명이 추구하는 사회적 요청(Postulat), 혹은 윤리적 당위가 이미 묘지의 명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묘지의 의미를 토포스로 보는 것이 논평자의 생각이다.

물론 친구의 인사문에 대한 묘명에서는 (원고 5쪽) 비술을 하지 못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불만을 표시한다기 보다는 비술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논평자의 학문적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논평은 하기 어렵다. 호이슬러 박사의 접근방식은 자료의 분량이 적었다는 제약이 분명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매우 특이한 연구태도라고 본다. 이마토 심화된 묘지 분석은 개인과 사회의 문명사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들춰내는 그런 장의성을 찾아가는 독일 학문계의 한 면모를 엿보기도 했다.